

‘푸른 상처, 별의 공존’

광주에서 활동한 고(故) 이강하 작가와 서울 지역에서 활동한 손기환 작가는 각자의 방식으로 오랫동안 사회적 발언을 해왔다.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민주화와 자유에 대한 열망을 절이 다른 작업 방식으로 표현하며 다양한 민중미술의 확장성을 제시해왔다.

두 사람은 지난 1994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민중미술 15년’전에서 조우했고, 26년 만에 5월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전시로 다시 만났다. 이강하미술관이 오는 30일까지 열고 있는 특별전시 ‘푸른 상처, 별의 공존’을 통해서다.

손기환(상명대 애니메이션학과 교수) 작가의 작품 ‘타! 타타타타타’ (1985)는 인상적이다. 배경은 한적한 어느 시골마을. 하늘엔 헬기가 떠 있고, 무장한 군인의 신체 일부가 보인다. 헬기 프로펠러가 들어가는 의성이 ‘타타타타’가 작품 속에 그대로 써 있고,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다.

손 작가가 1985년 박봉룡·박진화 작가와 함께 ‘한국 미술, 20대의 힘’전에 출품했던 이 작품은 전시 당시 경찰들이 들이닥쳐 작품을 탈취해 가면서 미술탄압의 사례로 기록됐다. 전시에서 만나는 작품은 훼손된 형태가 그대로 보여지는 ‘원작’이다.

홍익대 출신으로 ‘서울미술공동체’ 기획실장을 지낸 손 작가는 포스터, 실크스크린, 판화, 만화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민중미술의 지평을 열

이강하·손기환 참여 특별전
6월30일까지 이강하미술관

어가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5월 항쟁의 역사를 ‘딱지’ 형태로 묘사한 ‘딱지 시리즈’ 연작 14점과 올해 지속적으로 작업할 ‘광주 40년’ 연작 시리즈도 함께 선보이고 있다.

또 팝아트 느낌의 작품을 최민수가 출연했던 유명 청바지 광고와 5월을 접목시킨 팝아트 느낌의 작품 ‘광주-모래시계’ (1995) 등 다양한 장르로 구현된 오월미술을 만날 수 있다.

1980년 5월 조선대학교 재학 중 시민군에 참여했던 이강하 작가의 작품으로는 최근 발굴돼 첫선을 보이는 판화 ‘5월’ (1984)이 눈길을 끈다. 현재 서울 아트선재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40주년 기념전 ‘민주주의의 봄’에서도 만날 수 있는 작품으로 80년대 수감생활 중 느꼈던 감정을 묘사한 작품이다.

또 무등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오월 진흥곡 ‘아·광주’ (1995)와 감옥에서 나온 후에도 늘 감시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린 ‘무제-2(자아)’, 거친 무등산의 모습이 인상적인 ‘기다림’ 등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손기환 작 '타! 타타타타타'

5·18 40주년 기념전



허달용 작 '철조망과 잠자리'

‘반추된 역사’

모든 사람이 꿈꾸었던 대동세상의 모습, 강인한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붉은 황토, 노동의 신성함을 보여주는 현장.

민중미술 작가들이 화폭에 담은 소재들은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회에 대해 끊임없이 발언하며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역사의 현장과 전국 곳곳 우리 산하를 주제로 다양한 작업들을 해왔다.

은암미술관(관장 채종기)은 27일까지 5·18민주화운동 제40주년 기념전 ‘반추된 역사(反樞)’전을 열고 있다.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작가들의 생생한 사회적 욕성이 담긴 작품들이다.

출품작은 1981년부터 2000년 사이 제작된 27점으로 모두 12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회화작가로 김경주·박문중·박은용·서미라·송필용·신경호·유영열·이사범·주홍·하성흡·한희원·허달용이 참여했으며 판화 작품은 송필용·홍성담·신경호의 작품과 함께 단체 ‘5월 광주 판화’와 ‘새벽’의 작품이 함께 선보이고 있다.

김경주·박문중 등 작가 12명 참여
27일까지 은암미술관서 27점 전시

참여작가들은 농민과 서민 그리고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을 통한 건강성 회복, 산업사회의 문명적 비판과 현대 메커니즘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리얼리즘 형식과 포토몽타주 기법으로 묘사한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유튜브 채널 ‘은암미술관’에서도 감상할 수 있다.

전시를 기획한 박현일 학예실장은 “한국 현대사의 굴곡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번 전시는 민족적 특수성을 통한 독자성, 자유와 민족의 정신적 고유성을 형성하기 위한 집단적 표출인 1980년 이후의 새로운 미술운동의 흐름을 보여주는 기획”이라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조각보, 새로운 분위기 자아나다

박순천 ‘섬유패션워크’ 전 15일까지 휴광갤러리

‘조각보의 모던한 디자인을 만나다.’

조선 규방 공예를 대표하는 조각보는 다양한 조형성과 오방색을 활용한 다채로운 색감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현대 들어서는 세계적인 디자이너인 사넬과 알렉산드로 멘디니의 디자인에도 사용되는 등 전통을 넘어, 현대적 감각에도 적극 부응하고 있다.

박순천 작가가 오는 15일까지 광주 서구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 본부 LH휴광갤러리에서 개최하는 ‘섬유패션워크’ 개인전은 조각보의 현대적 해석을 다양하게 시도한 기획이다.

이번 전시에서 박 작가는 ‘Composition’ 시리즈 등을 통해 기존의 조각보를 재해석하고 새로운 컬러를 도입해 현대 패션에도 코디네이션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작품에서 만나는 조각보의 조형성은 다채롭다. 같은 형태의 조각을 이어붙인 반복형 디자인 작업을 통해서 통일성을 부여하고, 나선형 디자인으로는 역동성과 리듬감을 부여한다. 또 흠뻑려 놓은 듯한 느낌이 인상적인 자유배열형, 기존의 조각보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비대칭 디자인 등을 통해 다채로운 조각보의 변용을 보여준다.

색채 부문에서도 변화를 시도했다. 기존의 화려한 오방색 계열과 더불어 무채색을 함께 사용해 진중하고 무게감 있는 분위기도 전달하고 있다.



‘Composition’

박 작가는 성신여대 대학원(의류학 박사),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미술학 석사)을 졸업했으며 이탈리아 마라고니 의상예술학교 등에서 수학했다. 현재 조선대 미술대학 패션디자인전공 교수를 맡고 있으며 한국의류학회 이사, 한국디자인문화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중이다. 문의 062-360-3114.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당신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작곡가 이승규 기획... 10~11일·8월 5~6일 공연

“당신의 이야기가 예술이 됩니다.”

관객들이 보내준 사연을 바탕으로 음악을 들려주는 공연이 열려 눈길을 끈다.

이승규 작곡가협회 대표가 기획한 이번 공연은 광주시, 광주문화재단 야외공연장까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공연은 10일 오후 7시 광주폴리아이아트스트리트, 11일 오후 7시 광주시민회관에서 열리며 또 오는 8월5일 오후 7시30분, 8월 6일 오후 7시30분 광주시민회관에서 만날 수 있다.

공연은 관객이 사연을 종이에 사연을 적어내면 그 이야기를 토대로 예술가가 음악 등 예술적 표현을 선보이는 방식으로 열린다. 예술가는 어떤 주제의 사연이 나올지 모르며, 관객은 어떤 작품이 나올지 예측할 수 없다.

“당신이 위로받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행복했거나 가장 슬펐던 기억은 무엇인가요?’ 등의 질문에 대해 관객들이 가슴 속 깊이 묻어 있는 이야기를 꺼내면 예술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무대를 꾸며 관객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예정이다.



이승규

주홍

이다. 무대에는 작곡가 이승규, 치유미술가 주홍, 바 이올리니스트 이수산, 무용가 선유리가 오르며 영상은 윤혁진이 맡는다. 공연은 무료이며 시민 누구나 관람 가능하다. 문의 010-3093-4828.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